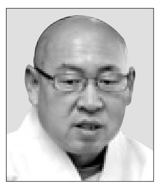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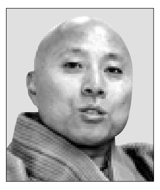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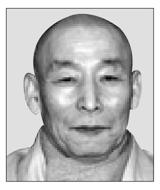
일 주 문



양양 낙산사 새해맞이 노인 잔치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 1월 19일 임진년 새해를 맞아 새해맞이 노인 위문 잔치를 개최했다.



청소년 내꿈찾기 의지나눔 제주도 캠프 성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1월 12~14일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의지나눔 겨울캠프'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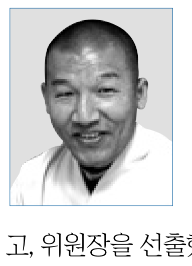


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신년기자회견
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도광 스님은 1월 17일 신년 지역 기자회견을 갖고, 2월 27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053)655-3380

제17회 신곡문학상 대상 수상
맹난자 前 수필문학 진흥회장은 신간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로 제17회 신곡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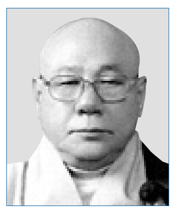
동방불교대학 2012 신입생 모집
이상우 동방불교대 이사장은 2월 20일까지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45-2030

〈인사〉 조계종 제9기 교육위원장에 주경 스님



조계종 교육원 제9기 교육위원장에 주경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됐다. 교육원은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랍 15일 위촉된 9기 교육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인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선출



종호 스님

이희구 회장

양영자 운영위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가 1월 18일 AW 컨벤션 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를 선출했다. 새 이사는 제주 제석사 주지 종호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도회 이희구 회장, 양영자 운영위원장이다. 이로써 협의회 이사는 기존 28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박기범 기자

"손길 미치고 말씀 전하는 곳마다 부처님 세상"

법주사 조실 범행 스님 영결식

1월 19일 보은 법주사에서 봉행한 범행 스님의 영결식에서 사부대중이 만장을 들고 다비장으로 향하고 있다.

보은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 대종사가 1월 15일 오전 1시경 수원 팔달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4세. 세수 91세. 스님의 영결식은 19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범행 대종사는 선학원 이사장 등 종단의 주요 종무직과 불국사 등 주지 소임을 공심을 갖고 임하면서도 이(理)와 사(事)를 둘로 보지 않고 항상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신심으로 주력과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많은 불사를 했던 선지식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보화(普化) 선사의 나무장삼은 동서남북의 문을 드나들었고, 설봉(雪峰) 선사는 네거리에서 선원을 세워 오가는 이를 제접했으니, 범행(梵行) 선사 역시 생사(生死)토록 언제나 무진법등(無盡法燈)이셨도다"라고 법어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가람이 정비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불연이 이어져 교화의 연꽃이 피어났다"고 추모했다.

영결식 후 범행 스님의 법구는 만장 행렬을 앞세운 채 법주사 연화대로 옮겨졌다. 상좌와 신도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이 거행됐다.

스님의 49재는 수원 팔달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범행 스님은 1921년 경기 화성에서 출생했다. 1948년 태고사를 찾아 포산 스님에게 출가, 1952년 팔달선원 전신인 팔달암에서 피난민들을 위로하며 도심포교에 힘썼다. 1955년 세납 35세때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봉은사 주지, 선학원 중앙선원장, 조계사 주지, 대구 동화사 주지, 경주 불국사 주지, 부산 금정선원장,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 사장 등을 지냈다. 1975년 선학원 제13대 이사장을 역임한 범행 스님은 17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범행 스님 임종게

일생동안 많은 일들이
꿈속에 일과 같네
한생각 내려놓으니 걸림이
없으니 기쁘고 기쁘도다.

一生多事 夢中如幻
一念放下 無碍歡喜

효일당 범행 스님 행장

1921년 2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5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남
1948년 건강이 좋지 않아 진산 태고사에 입산, 모다라니 기도정진으로 불보살의 가호를 받아 사경을 헤매다 소생했으므로 발심해서 출가결심
1949년 수원 팔달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4~1957년 서울 봉은사 정화 후 초대 주지역임. 경기도 종무원 교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 정화불사의 혼란 속에 송사 해결하는데 진력함
1956~1960년 종단 정화 과정에서 조계사가 운영난에 처할 때 마다 범행 스님이 주지로 임명돼 이를 극복함. 육군사관학교 포교 및 육군 제28사단 등 군부대 법당불사 등 군포교에 주력함
1959년 조계종 전계화상 동산 스님에게서 구족계 수지
1960~1961년 대구 동화사 주지 역임
1963년 총무원 교무부장 역임
1963~1966년 조계사 주지 겸 총무원 재무부장 · 선학원장을 역임하며 삼보정재가 덕성학원에 넘어가게 된 것을 수습해 되찾음
1963~1967년 총무원 감찰부장 역임
1968~1973년 불국사 주지 재임시 발굴조사 후 옛 모습으로 복원 불사함.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인 30명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후 기업인들에게 복원불사 기금을 모연해 불사를 지원함 불국사 주지 당시 대구 제2군사령부 군법당건립. 영천3사관학교 법당 불사 회향
1970년 대한불교신문사 사장
1973~199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건물공사 대금을 지급 못해 업자가 선학원 재산을 처분 하려던 것을 수습함.
1975년 수덕사 방장 혜암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당호를 효일로 명명함
1984~1986년 예산 수덕사 주지
1998년~2012년 법주사 조실.
2012년 1월 15일 01시10분 팔달사에서 세수91세 법납64세로 입적

가수 주병선 씨, 생명나눔홍보대사 위촉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40~60대 중년세대들의 애창곡 '칠갑산'을 부른 가수 주병선 씨가 장기기증 홍보에 나섰다.

주병선 씨는 1월 18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일면 스님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주 씨는 "작년 불암사 산사음악회에 초대됐을 때 일면 스님의 장기기증운동 활동을 보고 참여의 뜻을 전했다"며 "앞으로 공연과 음악회에서 적극적으로 생명나눔 홍보를 하겠다" 말했다.

주병선 씨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선행을 오래도록 해왔다. 현재는 소외이웃을 돕는 '파랑새' 모임을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 씨는 "젊은 시절 칠갑산이라는 노래로 큰 성공도 거뒀지만 적잖은 실패도 많이 했다. 동전한닢에 기타하나 메고 돌아다닐 정도로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며 "그럴 때 내 주위를 돌아보니 나보다 더 어렵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도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까짓 꺼 못 버티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씨는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18년이 돼간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하고 오면 기분이 좋고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브레인 병원 불자 3귀의 5계 법회

죽림정사 도문 스님 초청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회장 한명옥)는 1월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브레인병원(원장 김혁준)에서 3귀의 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김혁준 브레인병원 원장과 의사 · 간호사 등 진료진 40여명이 동참해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했다.

도문 스님은 수계 법어에서 "브레인병원에 와 보니 의사와 간호사 등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그야말로 보살행으로 느껴졌다. 오늘 불자 인연을 맺은 의사와 간호사 불자 모두가 자리(自利)의 6바라밀과 이타(利他)의 4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종단총연합진흥회 창립 선포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총재 일공, 회장 연화)는 1월 16일 독산동 앰베서더 호텔에서 '창립 선포 및 임원 임명식'을 봉행했다.

종단총연합진흥회는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이 6년 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회원종단을 준비해왔다.

종단총연합진흥회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16개 종단과 11개 단체를 회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 일공 스님, 원로위원 법광, 동산 스님, 회장 연화 스님을 비롯해 80여 대중이 참석했다.

총재 일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종단 화합을 이뤄 한국불교가 통합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는 향후 호국기원법회 개최와 함께 백제 · 신라 불교권에 대한 학술조사 및 성지순례, 회원종단 종찰 성지순례, 년2회 태고보우국사 및 육조단경 학술대회, 안거 승가교육를 진행할 예정이다. (02)857-2250

노덕현 기자

편향된 사회, 분열된 사회 - 우리사회의 화합은 멀기만 합니다.
이 사회가 화합하려면 불교가 나라의 지도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한미FTA … 좌파와 우파는 사사건건 극한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에서 불교를 비방합니다. 봉은사, 조계사 난동,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에 오물을 싸고, 팔정도 불상에 십자가를 칠하고, "오직 예수" 라고 씁니다.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편향되고 분열된 이 사회를 화합시키는 길은 부처님 가르침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배워야 한다, 나에 대한 집착(我相)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불교만이 우리나라의 지도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라는 화랑을 육성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교가 우리 지도이념이 되려면
젊은 불자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젊은불자육성 발원대법회

일시 : 2012년 2월 18일 오후 3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공연장

[주요 프로그램]

주제발표: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
젊은불자 육성사업 실적보고
젊은불자 육성사업 증진계획 보고
대학생 불자들의 국악연주와 율동
만해시 낭송 "당신을 보았습니다" 외
대불련 동문들의 성악, 춤, 연주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 문의 (02) 720-1963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한국수입업협회빌딩 4층
E-mail : cogenlee@hanmail.net
전화번호 : 02)720-1963 팩스 : 02)3483-0772